몽골 탐방기

이웃사촌의 뜻마저도 퇴색되어가는 요즘, 반가운 만남과 정겨운 대화의 장이 많아야 종중이 활성화된다. 전력부위공종중(원주시 소재, 회장 권순구, 총무 권순섭)은 지난 총회에서 여행 환경이 열악하지만 색다른 체험을 위해 몽골여행을 결정하였다. 드디어 7개월 만에 여행의 설레임과 몽골의 날씨 숙소 음식 교통 등 염려 속에 지난달 6월 20일 3박 4일 몽골여행을 시작하였다. 강원도 원주 횡성 경기도 등지에서 13가족 26명이 참여하였다.

첫째 날, 전세버스가 새벽 5시 20분 출발하여 7시 20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아침은 김밥과 생수로 하였다. 인천에서 10시 25분 출발, 점심은 단체구입 기내식으로 하였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몽골의 아름다운 초원에 감탄이 나온다. 3시간 20분 비행 후 1시 45분 몽골 칭기스칸 공항에 도착하였다. 시야에는 우리나라 비행기만 보이고, 아담하고 시골스러워 정겹다. 가이드의 몽골 전통복장은 손님을 맞이하는 예절이라고 한다. 버스를 타고 50분 동안 이동하며 가이드의 다양한 안내를 들었다. 주의사항 세 가지는 1시간 시차, 도난, 미안하다는 뜻으로 손잡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몽골 특징은 내륙국가, 평균 해발 1500m, 연간 70% 겨울, 유목생활, 느림의 문화, 주식은 고기라고 한다. 가이드의 유창한 한국말이 놀랍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하였다. 울란바토르의 특징은 교통정체로 5부제 시행하고, 정체로 이동시 시간이 아니라 Km 표현이 적당하며, 30여 개의 모든 대학도 수도에 있고, 배수시설이 없어 홍수 피해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기업 마트가 아주 많았다. 자이승 전망대에서 울란바토르 시내를 보고, 오랜 역사를 지닌 국립역사박물관을 탐방하였다. 역사에 대한 자부심, 심한 빈부격차,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 식사는 소고기, 말고기, 양고기 샤브샤브와 몽골 보드카였는데 입맛에 맞아 추가 신청이 많았다. 저녁 후 10분 이동하여 전통문화 공연을 70분 관람하였다, 몽골 특색이 잘 드러난 음악과 춤에 감명 느꼈고, 한국 관객을 위한 아리랑 합주는 대단한 환호를 받았으며, 현대 성악과 현대 유행음악 연주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호텔 로비에는 숙박한 유명한 각 나라 정치가 예술가들의 사진이 있었다.

둘째 날, 호텔 조식 후 2.4Km 이동하여 국립역사박물관을 관람하였다. 입구에 한글 환영 문구가 있었다. 10~12세기 칫솔이 사용되었고, 몽골 모자는 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칭기스칸의 여권 제작 활용은 마르코폴로도 잘 이용하였다고 하였다. 세계문화유산 나담 축제도 알게 되었다. 박물관은 작은 편이지만 몽골문화를 잘 느낄 수 있었다. 최저기온 1도, 최고기온 5도라고 한다. 수흐바타르 광장으로 가는데 바람이 불고 춥다. 배수시설이 없는데 폭우가 내려 걸어가는데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곳이 많다. 캐시미어 매장을 갔다. 캐시미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몽골 주요산업이라고 한다. 마사지샵으로 이동하여 기다리는데 창밖에 비 대신 함박눈이 펑펑 펑펑 쏟아진다. 추위를 참으며 모두들 눈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바빴다. 마사지를 받았다. 점심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삼겹살집이다. 맛이 좋아 삼겹살과 채소 추가 신청이 많다. 오늘이 하지라 낮이 16시간 밤이 8시간이라는데 밖에 나오니 기온 0도고 함박눈은 계속이다. 약 90Km 떨어진 테렐지 국립공원으로 이동하는데 버스가 또 하염없이 밀린다. 30분 이동 테렐지 가기 전 마지막 마트에서 게르 2박 동안 사용할 물품을 구입하였다. 푸른 초원, 산기슭과 초원에 하얀 게르, 초원에서 풀을 뜯는 소양 달리는 말떼, 하얀 눈이 쌓인 산들 정말 아름답다. 비포장길도 한참 달려 게르에 도착하였다. 폭풍이 분다. 테렐지 국립공원 지역 전체가 정전인데 언제 복구될지 알 수 없단다. 체감기온은 영하 5도 이하다. 대형 게르 식당에 모여 걱정스런 대화를 하였다. 저녁을 먹고 난 후에도 정전이 계속이다. 난방이 안 되는 이곳 게르에서는 잘 수 없다. 8시 40분 전기가 복구된 다른 게르로 버스로 20분 이동하여 숙박을 하였다.

셋째 날, 다른 게르에서 1박, 조식 후 전날 밤 3시에 전기가 복구된 본 게르로 이동하였다. 오늘 기온은 3도~12도라고 한다. 게르 주변에 할미꽃, 민들레, 엉겅퀴, 에델바이스가 예쁘다. 거북바위로 이동하였다. 단체 사진도 촬영하고 기념품 매장도 갔다. 이곳에서도 달러와 카드를 쓸 수 있었다. 11시 비포장도로 15분 정도 이동하여 승마체험을 하였다. 전통차와 치즈도 먹고, 몽골 전통복장을 입고 승마체험을 하였다. 소년과 소녀 체험안내자도 있었다. 점심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닭도리탕이다. 큰 식당인데도 손님이 많아 15분 정도 기다렸다. 맛있었다. 식후 2시 푸르공 체험장을 하였다. 차 3대에 탑승하여 말, 소, 양 떼들이 있는 푸른 초원, 테렐지 공원 2개 봉우리를 갔다. 봉우리에서 바라본 푸른 초원은 정말 아름다웠다. 다음은 테렐지 국립공원의 안녕을 기원하는 아리야발(새벽) 사원을 관람하고 숙소로 왔다. 저녁 식사는 양고기 수육이었다. 저녁 후 8시 캠프파이어가 있었다. 모두들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박수를 치며 즐겼다. 게르 여사장이 2년 전 한국병원에서 심장수술 후 완치하여 목숨을 이었다며 한국인 손님을 맞아 기쁘다며 눈시울을 적시며 모두 건강하길 기원한다며 감사 인사를 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별과 은하수를 볼 수 없어 아쉬웠다. 10시 30분 즐거운 여행을 기원하며 캠프파이어를 마쳤다.

넷째 날, 오늘 날씨는 여행하기 좋다. 조식 후 기마상으로 40분 이동하여 관람하였다. 전망대에서는 수십 Km의 초원과 산이 보인다고 하는데 푸른 하늘과 인공구조물이 거의 없는 넓은 초원은 아름다웠다. 바로 옆에서 낙타타기, 활쏘기, 독수리 체험을 하였다. 1시간 공항으로 이동하여 햄버거로 점심을 먹었다. 칭기스칸 공항을 2시 35분 출발 6시 45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원주행 전세버스에서 저녁으로 김밥을 먹었다.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을 함께 해서 행복하였고, 항상 건강하길 바라며, 종사에 늘 함께하길 기원하는 회장님의 끝맺음 인사가 있었다. 9시 원주 도착 후 해산하였다.

권순구 원주종친회장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39〉

석오집(石塢集)

권갑현 편집위원장

〈석오집〉은 권병섭(權秉燮, 1854-1939) 공의 시(詩)와 산문(散文)을 모은 것으로 10권 5책이다.

공의 자(字)는 국형(國衡)이고 석오(石塢)는 호(號)이다. 안동권씨 33세(世)로 부정공파(副正公派)이다. 생부(生父)는 권교영(權教永, 1836-1914)이고, 양부(養父)는 13촌숙 권조영(權祚永, 1827-1896)이다. 생모는 선성김씨(宣城金氏)로 영성(永聲)의 따님이고, 양모(養母)는 의성김씨(義城金氏)로 이수(耳壽)의 따님이다. 거주지는 안동 임하면이다.

공은 7세에 길헌(吉軒) 김진명(金鎭明, 1813-1872)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어린 나이에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사부(詞賦)는 합격했으나 경사(經史)는 통과하지 못하자, 거경(居敬), 궁리(窮理), 역행(力行) 이 셋을 학문의 처음과 끝으로 삼았다. 이어 외삼촌 김양진(金養鎭)에게 배우고,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 1827-1899)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공은 더 이상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물러나, 경학(經學)과 성리학(性理學)에 몰두하여, 이를 실천하는데 힘썼다. 범암(汎菴) 류연즙(柳淵楫), 잉수(剩叟) 김소락(金紹洛), 지애(芝厓) 조영기(趙榮基), 석로(石老) 김건락(金健洛), 추산(錘山) 권한모(權翰模), 청석(淸石) 서석화(徐錫華) 공 등과 교유하며, 의리(義理)를 강마(講磨)하고 덕업(德業)을 서로 권하며, 편지를 주고받고 시장(詩章)을 창수(唱酬)하였다.

〈석오집〉은 집안 조카인 권영만(權寧萬)이 유고(遺稿)를 모아 간행하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공의 후손 권오혁(權五赫), 권태훈(權泰勳), 권영구(權寧球), 권오순(權五洵) 등이 의논하여 다섯 권의 등사본(謄寫本)으로 간행했다. 뒷날 재원을 마련하여 1974년에 연활자본(鉛活字本)으로 간행하였다.

서문은 중재(重齋) 김황(金榥, 1896-1978)과 만산(晩山) 이정혁(李正赫, 1891-1984)이 짓고, 발문은 족질(族姪)인 권병철(權炳哲)이 썼다. 행장은 남병기(南炳基, 1887-1979)가 지었으며, 묘갈명은 류동수(柳東銖, 1899-1938)가 지었다.

〈석오집〉의 제1권은 시(詩), 제2권은 만사(輓詞), 제3,4권은 서(書), 제5권은 잡저(雜著), 제6권은 서(序)·기(記)·발(跋)·명(銘), 제7권은 상량문·고유문·축문·제문·뇌문(誄文)·애사(哀詞), 제8권은 묘갈명·묘표(墓表)·묘지명·광기(壙記), 제9권은 행장·유사(遺事)·전(傳), 제10권은 부록으로 만사·제문·행장·묘갈명이 실려 있다.

다음은 제6권에 실려 있는 〈사우명(四友銘)〉을 국역한 것이다. 사우(四友)는 문방사우(文房四友)로 종이·붓·벼루·먹을 이른다.

종이[지(紙)]

以素受采, 質之美也, 同體異用, 德之備也.
載聖賢模訓, 而不自多, 處汙穢卑賤, 而不自羞.
又能安於所遇也, 此, 賢人君子所以取友也.

흰색이어서 채색을 받아들이니 바탕이 아름답고, 한 가지로 여러 곳에 쓰이니 덕(德)을 갖추었도다. 성현의 가르침을 싣고도 자신을 현명하다 여기지 않으며, 더럽고 천한 곳에 처해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또한 만나는 상황을 편안히 여길 줄 안다. 이것이 실로 현인군자가 벗으로 삼는 이유라네.

붓[필(筆)]

工者工, 拙者拙, 卽手有工也, 又能安於所遇也.
大則大, 小則小, 卽體有大小也, 工拙應乎人, 大小由乎己.
是其爲處世之道也, 是以, 令名無窮焉, 何患乎銳而夭.

능하면 교묘하고 서툴면 졸렬하니 재주는 손에 달려있고, 또한 만나는 상황을 편안히 여길 줄 안다. 큰 건 크고 작은 건 작으니 몸체가 크고 작음이 있네. 능하고 서툶은 사람에 달려있고 크고 작음은 자기 때문이니,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네. 이르므로 아름다운 이름이 끝이 없으니, 어찌 뾰족해서 일찍 못 쓰게 됨을 걱정하리요?

벼루[연(硯)]

鈍而靜, 體之全也, 噀而潤, 文之著也.
所以薰爐棐几, 樂與之處也.
雖曰磨而不磷者幾希, 豈可以是而短汝也.

둔하지만 고요하니 몸이 온전한 것이요, 물을 머금어 윤이 나니 문채가 드러남이네. 그래서 향로와 책상이 기꺼이 함께 있는 것이네. 비록 아무리 갈아도 얇아지지 않는 것은 드물다 하나, 어찌 이로써 너를 허물할 수 있으랴?

먹[묵(墨)]

好白而黑, 惡圓而方, 處之以鍮硯, 非其泰也.
儲之以錦囊, 尤有光也. 胡乃磨頂放踵, 而不自恤也.

흰 것을 좋아하나 검게 하고, 둥근 것이 미워서 모나게 하네. 놋쇠벼루로 대신하면 아름다운 일이 아니고, 비단주머니에 보관하면 더욱 빛날 것이네. 어찌 끝까지 갈리도록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가?

四友銘

以素受采質之美也同體異用德之備也載聖賢模訓而不自多處汙穢卑賤而不自羞又能安於所遇也此賢人君子所以取友也　右紙

工者工拙者拙卽手有工拙也大則大小則小卽體有大小也工拙應乎人大小由乎己是其爲處世之道也是以令名無窮焉何患乎銳而夭　右筆

鈍而靜體之全也噀而潤文之著也所以薰爐棐几樂與之處也雖曰磨而不磷者幾希豈可以是而短汝也　右硯

知白而黑惡圓而方處之以鍮硯非其泰也儲之以錦囊尤有光也胡乃磨頂放踵而不自恤也　右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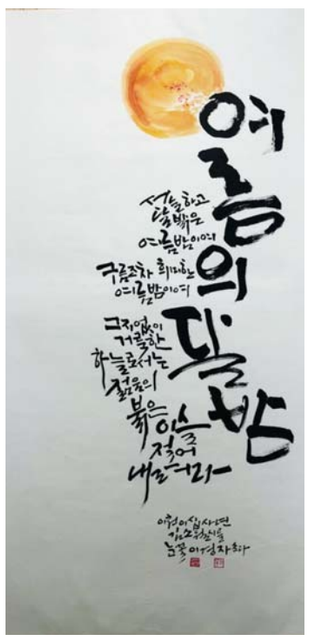
이경자 제55대 사임당 제4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입상

권혁홍 회장과 이경자 사임당

이경자 제55대 사임당이 제4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에 김소월의 〈여름의 달밤〉이라는 시를 작품으로 출품하여 특선의 영예를 안았다.

현직 사임당이 국전에 출품하여 입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임당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사장 김천주)에서 훌륭한 여성상으로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매년 선발하고 있다. 현모양처를 뽑는 것이 아니고 가정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남다른 사회봉사정신으로 이웃에 봉사하며 한 분야에 탁월한 예술적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사임당으로 발굴한다. 이경자 제55대 사임당의 부군은 권혁홍 대양그룹 회장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여름의 달밤

서늘하고 달 밝은
여름이여
구름조차 희미한
여름이여
그지없이 거룩한 하늘로서는
젊음의 붉은 이슬
젖어 내려라

제2회 ART 안동회 초대전

추억의 시간여행, 향수

제2회 ART 안동회 초대전이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인사동 GB 갤러리 경북 마루아트센터 2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대전은 28명의 안동 출신 작가들이 초대되었다. 특히 권종숙 작가와 권갑순, 권숙란, 권영애, 권현숙, 권세린, 권숙병 등 안동이 고향인 안동권씨 여성 작가만 7명이나 초대되어 거의 안동권문의 전시회를 방불케 하였다.

권갑순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서예부문 초대작가, 권숙란 작가는 일본 오사카갤러리 초대작가와 국제한얼문화예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권영애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와 제4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권세린 작가는 현재 KOREA ART 형상회 자문위원장을, 권종숙 작가는 상록아트회 사무국장을 각각 맡고 있다. 한마디로 쟁쟁한 작가들이다. 그 쟁쟁한 작가들이 ART 안동회 초대전에 한꺼번에 초대되어 고향을 빛내고 있다.

안동권문의 딸답게.

권행완 편집국장

권숙란 화조도 앞에서. 권종숙, 권숙란, 권세린 작가(왼쪽부터)

권종숙. 한국의 미(뒤태)

권영애. 시선5

권세린. 대부도의 노을